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근로자 세금 평균 28% 인하

(생활)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4일 근로자 세부담을 평균 28% 깎아주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하는 바람에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될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구제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3백억 대부

노동부는 9월 추석을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300억원을 장기체불 노동자의 생계비와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부해주기로 했다. 이 생계비는 신청일 현재 두달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와 월평균 임금이 120만원 이하인 1년 이상 근속 노동자에게 대부된다. 신청은 9월4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하면 된다. (02)503-9732

전세자금 대출한도 늘려

(주택) 주택은행은 지난달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종전 전세금의 50%까지에서 70%까지로 늘리고 대출신청 시기도 전입후 3개월 이내를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단 대출금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100% 지원한다.

인터넷으로도 전보가능

(통신) 한국통신은 지난달 24일부터 전화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전보를 칠 수 있는 '인터넷114'(http://www.i115.co.kr)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용요금은 축하메시지·전보가 2천원 내외, 생일 케이크를 보내는 서비스가 2만원 정도며 꽃다발을 보내려면 3만원 정도면 된다. 요금은 다음달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된다.

농촌 유치원생 교육비 지원

(교육)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촌지역 저소득 가정의 유치원생 2만3천2백명에게 교육비(1인당 월 평균 8만1천원)를 국고로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중·고교생 40만명의 학비를 전액 면제하며 작은 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학·대학원생을 올해 2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비타민C 스트레스 예방

(건강) 미국 앨라배마-헌츠빌 대학의 새뮤얼 캠벨 교수는 최근 미국화학회에서 비타민C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오렌지 쥬스가 하루의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다고. 단 담석증 환자에게는 비타민C가 결석을 만들 수 있으므로 과도한 섭취는 금물.

■도청-몰카등 사생활 침해 '위험수위'

누군가 엿보고 엿듣는다

상반기 감청 작년비해 16.6% 증가
정부 불법 계좌추적 한해 8만건 넘어

누군가가 엿보고 엿듣고 있다. 모든 신상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새나가고 있다. 최근 '사생활 침해'와 관련해 밝혀지고 있는 갖가지 사례들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임을 실감케 한다. 사생활 침해는 이제 우리사회에서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겨레신문이 지난달 22일 '불법도청'과 관련한 취재보도 내용은 매우 충격적이다. 강남 테헤란로 일대의 사무실에서 반나절동안 모두 26건의 도청 사실이 확인됐는가 하면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1시간만에 무려 42개의 도청기가 작동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만약 하루동안 추적을 한다면 100~200개의 도청기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도청방지 전문가는 밝히고 있다.

또한 같은 날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동안의 감청현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나 늘어난 데다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불투명해 정부차원의 사생활 침해도 마위에 오른 상태다.

엿듣기 못지않게 엿보기 실태도 심각하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많은 음란비디오가 몰래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지난 7월 경찰조사에서는 서울 세운상가에서 한달 동안 팔리는 몰래카메라가 12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도청기·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사생활을 엿보는 것은 물론 휴대폰 사서함 비밀번호나 전화통화 내용·주민등록등본을 수시로 빼내는 등의 심부름센터 불법행위나 일부 카드사의 고객 신용정보 유출 등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97~98년동안 금융기관 고객계좌추적을 무려 46%나 늘려왔으며, 이 가운데 법원의 영장없이 계좌를 추적한 사례도 40%나 느는 등 사생활 침해를 막아야 할 정부가 오히려 한해 8만건이 넘는 불법 계좌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인터넷도 이미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곳에 입력된 정보는 이를 얻기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업체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결국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업적으로 혹은 악의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홍준형 교수(서울대 공법학과)는 올해 초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국가가 국민 앞에 국민 개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그 실천의지를 담은 헌장 제정 △사생활 보호 수칙을 만들어 학교 및 공무원 교육 등 모든 교육과정에의 반영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방어수단을 갖춘 '사생활 보호법' 제정 △사생활 보호를 전담하는 의회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었다.

사생활 침해는 강력범죄 못지않은 중대한 인권유린이자 비열한 범죄다. 따라서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제도 등 각종 제도를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적극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사생활 침해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진은 한겨레신문 취재팀이 도청방지업체 직원들과 함께 차량안에서 도청감지장치를 이용해 도청기가 설치된 곳을 추적하는 모습

"부정부패 척결하자"

847개 시민단체 '반부패연대' 창립

시민들이 부패감시에 나섰다. 민주개혁국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노총 등 847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반부패국민연대'를 공식출범시켰다.

'반부패국민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등 각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하나의 관행이 돼있다"면서 "국민과 각종 단체, 학자, 양심적 공직자, 기업인 등이 합심해 부정부패 척결과 비리추방에 나서기로 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반부패연대는 전국 150개 지역에 지역센터와 순회버스를 운영하는 한편, 부패한 인물들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www.transparency.or.kr)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분기별로 각 분야의 부패인물과 청렴인물을 선정 시상도 한다.

"작은 혼례 실천하자"

생활개혁범국민협, 시민운동 전개

최근 호화결혼식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결혼풍조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건전한 결혼문화를 만들어보자는 '작은혼례실천운동'이 생활개혁실천범국민협의회(이하 '생개협')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생개협 소속의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작은 혼례 9계명'을 선정 발표해 관심을 끈다. 9계명은 △청첩장을 식후 알림장으로 대신한다. △경조비 관행 근절 △피로연은 가족모임으로 △예물은 간단한 증표로, 예복은 예식후 활용가능한 것으로 마련 △예단은 부모님께만 필요한 물품으로 △공공기관이나 무료실비예식장 평일 또는 야간 이용 △개성적이고 검소한 신혼여행 △신혼주택은 알뜰한 생활, 치밀한 계획으로 스스로 장만 △나부터 작은혼례운동에 동참 등이다.

시론

아이 낳을 권리

최근 김홍신의원에 의해서 정신지체장애인 66명이 수용중인 보호시설들에 의해서 강제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왔다. 63년에서 98년까지 남자 48명, 여자 27명 등 75명이 불임수술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남자 40명, 여자 26명 등 66명이 강제수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며칠 뒤에 광주에서도 100여명의 정신질환자에게 강제 불임수술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강제불임수술과정에서 구청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외국에서도 최근까지 유전으로 간주되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 강제불임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정신지체장애인 불임수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이 73년에 제정되었다가 98년 2월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 법이 개정됨으로써 강제불임수술은 인권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정해진 것이다.

이춘기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보호시설 수용자 강제 불임수술 명백한 인권침해"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수술이 여러 시설들에서 행해지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게 되었다. 정신지체장애인들의 삶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들을 돕는 것인지 이제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장애인강제불임수술에 대해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자기자신의 생활자체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들을 최대한도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다른 입장은 정신지체장애인도 일반의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밀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반되는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화를 이루느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것이 정신지체장애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책임져야 할 문제다.

자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가장 고귀한 희망이고 행위이다.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구성원이 태어나야 하고, 이를 위한 행위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도 안되며,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그런 점에서 강제불임수술은 마땅히 배격되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해가지 못하고 사회적 도움(여러 시설들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아기를 가졌을 경우 어떻게 이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제반 사정은 이들을 무리없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들의 권리를 인위적으로 침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권의 문제와 행복의 문제를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진지하고 조심스런 접근은 필요하다.

여러가지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문제도 그 사회가 처해 있는 시대적, 역사적 조건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이 존엄성은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존엄성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행복을 동반한 존엄성의 규정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행복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반 사회복지정책의 정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이 크게 향상돼야 한다. 그래야만 권리의 보호와 함께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

달마도(병풍), 佛字 특별가격보시

⊙달마도가격
소지용(15×15) 15,000원
액자용(70×37) 25,000원
액자용(70×45) 30,000원
액자용(140×37) 70,000원
액자용(140×74) 100,000원
佛字 (140×37)20,000원
⊙8폭병풍완제품(고급비단표구)
(360×182cm)
- 단면 85만 → 76만원
- 양면(뒷면 반야심경) 98만→ 88만원

※10점 이상 구입시 20% 할인
※병풍 홍보기간 중 10% 할인
※작품이 마음에 안드실 경우 반품 가능

卍 천만불자 가정에 한점씩 걸기 운동

창혜(滄慧)거사, 김성은 화백이 직접그린 작품을 재료비 및 홍보비에 지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코져 전국 어디든지 보내드리니 불자님들과 스님들께서는 좋은 포교방편의 선물용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卍선물용 적합(액자없이 선물 가능)
卍24시간 공휴일에도 접수 받음
卍입금처(온라인 번호)
농협 148-12-032751 김병구
卍연락처 :
TEL 032)656-3089
H.P 011)9043-3089
滄慧 金盛垠 합장

韓國禪畫研究院
·본원에서는 결식아동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있는 불교포교의 명문 학당
1999년도 후기
부산불교교육대학
경전연구과정 교리반 수화반
신입생 모집

▶ 입학안내 ◀

구 분	제4기 경전연구과정	제14기 교리반	제6기 수화반
1. 입학자격	본대학 포교사과정 수료자나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불교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수화를 바르게 알고 싶은 남·여
2. 교육기간	2년(1999년 9월~2001년 8월)	6개월(1999년 9월~2000년 2월)	3개월(1999년 9월~11월)
3.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매주 목·금요일 오후 2시~4시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4. 교육장소	화엄회관 본 대학 강당(구, 부산진구청 뒤)		
5. 원서접수	1999년 7월 21일 ~ 8월 31일		
6. 구비서류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2매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부산불교교육대학 교무실 (☎ 051-818-8659, 807-7351)		
8. 전형방법	서 류 전 형		
9. 입 학 식	1999년 9월 1일(수) 오후 7시	1999년 9월 2일(목) 오후 2시	1999년 9월 3일(금) 오후 7시
10. 등 록 금	입학금 5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20,000원	입학금 3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30,000원	입학금 20,000원(교재제공) 수업료 월 10,000원
11. 특 전	본대학 학칙에 따라 자격증 부여	수료자는 포교사 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장애인포교의 기회를 제공하며 수화 통역사 자격시험에 추천됨

부산불교교육대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8/2
성원서면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 (구, 부산진구청 뒤)
☎ 051)818-8659, 807-7351